

싸이타임, 메가칩스에 2억 달러에 피인수

- 반도체 벤처 기업 중 2014년 최대 규모의 인수 합병 건
- 메가칩스, 싸이타임의 MEMS 타이밍 점유율 80% 확보로 MEMS 선도 기업으로 발돋움
- 메가칩스의 6억 달러 매출액, MEMS 시장의 규모 및 성장을 위해 지원

2014년 10월 30일 – MEMS 및 아날로그 반도체 전문기업 싸이타임 코퍼레이션(SiTime Corporation)은 업계 상위 25위 팹리스 반도체 기업인 일본의 메가칩스 코퍼레이션(MegaChips Corporation)이 인수 대금 2억 달러를 현금으로 제공해 싸이타임을 인수한다는 최종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양사간 이번 계약은 급성장하고 있는 웨어러블, 모바일, IoT 시장에 솔루션을 공급하는 팹리스 반도체 선도 기업인 두 회사가 상호보완적인 통합을 시도한 것으로 평가된다.

싸이타임의 라제쉬 바쉬스트(Rajesh Vashist) CEO는 “싸이타임의 공동 설립자 마커스 루츠(Markus Lutz)와 아론 패트리지(Aaron Partridge)는 50억 달러 규모의 타이밍 산업을 혁신하기 위한 획기적인 MEMS와 아날로그 기술 개발이라는 비전을 갖고 회사를 창립했다”며, “혁신, 열정, 집중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비전을 성공적으로 달성했다. 현재 싸이타임은 1,000여개 고객사에 2억 5,000만개의 제품을 선적하고 있을 뿐 아니라, 모든 전자제품 부문에서 주요한 디자인 원을 달성하여 선도적인 기업으로 평가 받고 있다. 또한 싸이타임의 MEMS 기술이 타이밍 시장 전체에서 확대될 수 있는 로드맵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라제쉬 바쉬스트 CEO는 “모든 싸이타임 직원들은 메가칩스의 일원이 되어 공통적인 기업 문화를 공유할 수 있다는 사실에 고무되어 있다”며, “메가칩스의 건전한 재무상황과 규모는 싸이타임의 혁신 및 열정과 결합하여 MEMS 타이밍 솔루션이 시장에서 빠르게 채택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자제품 세계는 수많은 혁신들이 실현되고 있으나, 모든 전자제품에서 핵심적인 기능으로 자리잡은 클럭 기능은 75년이나 된 퀴츠(석영) 기술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 싸이타임의 혁신적인 MEMS 타이밍 솔루션은 통신, 네트워킹, 컴퓨팅, 스토리지 및 컨슈머 시장에서 오래된 기존 방식의 퀴츠 제품들을 대체하여 고성능, 소형 크기, 저전력, 저비용의 기술적 혜택을 제공한다.

메가칩스 코퍼레이션의 아키라 타카타(Akira Takata) 사장 겸 CEO는 “메가칩스는 자체 성장과 전략적 인수를 통해 세계 10대 팹리스 반도체 기업으로 성장하는 비전을 가지고 공격적인 성장 전략을 펼치고 있다”며, “MEMS 부품들은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싸이타임의 인수를 통해, 메가칩스는 MEMS 부문에서 선도업체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싸이타임은 메가칩스의 포트폴리오 확장 및 고객 기반 다원화를 지원할 것이다. 싸이타임 기술은 우리의 초저전력 스마트폰 센서 허브 LSI(Sensor Hub LSI)인 “프리즈(frizz)”와

서브GHz RF LSI인 블루칩 와이어리스(BlueChip Wireless)처럼 웨어러블, 모바일, IoT 시장을 겨냥하는 메가칩스 솔루션과 완벽히 조화된다”고 말했다.

독일 기업 로버트 보쉬(Robert Bosch GmbH)의 경영이사회 회장을 맡고 있는 폴크마 데너(Volkmar Denner) 박사는 “보쉬는 싸이타임의 창립 투자자로서, 싸이타임이 MEMS 타이밍 시장을 주력분야로 삼았을 때 이미 관련 시장에 엄청난 비전과 혁신이 존재한다고 파악하고 있었다”며, “그 동안 싸이타임이 실리콘 밸리 벤처기업에서 세계 최대 전자 기업들에게 납품하는 수익창출 기업으로 거듭나는 성공을 가까이서 지켜봐 왔다. 메가칩스가 싸이타임을 인수하게 된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양사 합병에 희망찬 미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프코 벤처스(Jafco Ventures)의 매니징 총괄 파트너인 조 호로비츠(Joe Horowitz) 싸이타임 이사회 멤버는 “이번 합병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메가칩스와 싸이타임은 매우 상호보완적인 기업으로서 혁신적이면서 유사한 기업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전자 산업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공통의 비전을 갖고 있다”며, “싸이타임의 독자적인 기술과 매우 차별화된 기술을 바탕으로 이번 합병이 향후 화려한 미래를 보여주는 서막에 불과하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투자기업 뉴 엔터프라이즈 어소시에이츠(New Enterprise Associates, NEA)에서 벤처 파트너이면서 싸이타임의 창립 투자자 및 이사회에서 활동 중인 브룩 시웰(Brooke Seawell)은 “지난 10년간, 싸이타임은 뛰어난 기술 플랫폼을 비롯해 선도적인 고객사들의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시키는 제품군을 구축해 왔다”며, “메가칩스의 경영 및 글로벌 규모를 바탕으로 싸이타임의 미래는 매우 밝다고 생각한다. 통합된 두 회사는 MEMS 타이밍 솔루션 채택을 가속화시킬 것이며, 전자 산업에 선도적인 공급업체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보류상태인 규제 승인과 계약 청산 조건 및 규정(customary closing conditions)은 2014년 11월 중으로 잡혀져 있다. 이에 대한 사안이 완료되면, 싸이타임은 회사명을 그대로 유지하고 메가칩스의 100% 자회사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계약과 관련하여, 니드햄앤컴퍼니(Needham & Company, LLC)가 싸이타임의 독점적인 투자자문업체로 활동했다.

메가칩스 코퍼레이션(도쿄 증권거래소 1부에 상장: 코드명 6875)은 LSI, 시스템 지식 및 솔루션 통합을 목적으로 ASIC과 시스템 LSI을 전문으로 하는 혁신적인 팹리스 기업으로 1990년에 설립되었다. 이 회사는 이 미지, 오디오, 텔레콤 분야에서 고유의 알고리즘과 아키텍처를 통합하는 최첨단 시스템 LSI 및 시스템 제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고객사의 요건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뛰어난 제품과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전념을 다하고 있다.

보다 상세한 정보는 <http://www.megachips.co.jp/english/index.html> 참조.

참고 자료

- [싸이타임 회사소개](#)

- [싸이타임 인수 FAQ](#)
- [싸이타임 웹사이트](#)
- [싸이타임 사진](#)
- [싸이타임 어워드](#)
- [메가칩스 웹사이트](#)

싸이타임(SiTime)회사 소개

MEMS아날로그 반도체 전문기업인 싸이타임 코퍼레이션(SiTime Corporation)은 전통적인 퀴츠(석영)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MEMS기반의 실리콘 타이밍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다. 싸이타임은 80%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약 2억5,000만 개의 디바이스를 선적하면서 100% 실리콘 기반의 타이밍 소자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싸이타임은 현재 이 시장에서 실리콘랩스(Silicon Labs), 마이크로렐(Micrel), 세이코 엡손(Seiko Epson), 교세라(Kyocera) 등의 기업들과 경쟁하고 있다.

싸이타임의 구성 변경이 가능한 솔루션을 사용함으로써 고객들은 더 우수한 성능, 더 작은 크기, 더 높은 신뢰성을 통해 제품을 차별화할 수 있다. 싸이타임의 풍부한 기능세트와 유연성을 통해 고객들은 자신들의 공급망, 총소유비용 절감, 시장 출시 시기 단축 등의 이점을 누릴 수 있다. 표준화된 반도체 공정과 대량생산 패키징을 사용함으로써, 싸이타임은 업계 최고수준의 공급력과 매우 짧은 납기 기간을 제공한다.

주요 제조업체들은 이러한 이점을 바탕으로 싸이타임을 The Smart Timing Choice™로 인지하고 있다. 상세 정보는 www.sitime.com 참조.

싸이타임 본사 문의:

Piyush Sevalia/ Executive Vice President, Marketing
SiTime Corporation
408.331.9138
psevalia@sitime.com

보도자료 문의:

페리엔/ 김진희 팀장
010-6366-0926
02-565-6625
amy@perrien.co.kr

###